

1. 탄소시장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 Carbon Expo 2010 (2010.5.27 ~28)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시장, 온실가스 감축 전시회인 Carbon Expo 2010에 참가하여, 국제 온실가스 검증사업과 각국의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 "Carbon Expo"는 탄소시장 분야 세계 최대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시회로, 금년에는 100여 국가와 탄소시장 관련 250여개의 기업이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기업, 정부 및 언론관계자 3천여명이 참석하였다.

○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Association) 주관으로 교토메커니즘의 향후 방향 및 배출권거래 시장의 발전방향 등 탄소시장·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을 포함 몇몇 기업들이 참관 하였으며 에너지 관리공단의 경우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한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노력, 국내 탄소펀드 투자 현황 및 국제 온실가스 검증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 또한 5월 27일(목)에 개최된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국내 탄소시장의 역할” 이라는 주제의 워크숍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은 한국의 자발적 탄소저감 프로그램인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국제적 탄소시장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사진1설명 :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Carbon Expo 2010가 열렸다.



* 사진2설명 : 에너지관리공단은 5월26일부터 2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Carbon Expo 2010 전시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한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노력, 국내 탄소펀드 투자 현황 및 국제 온실가스 검증 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2. “회복력있는 도시” 이클레이 총회(2010.5.28 ~30)



독일 본 시에서 열린 2010 ICLEI 세계총회는 2010. 5.30일 폐회되었다. 19개 국 600 여 명의 대표들은 3년 만에 열린 ICLEI 세계총회에 함께 모여 3일 간의 일정으로 지구를 바꾸기 위해 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다.

총회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지도자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혁신적이고 시급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나눈 것이었다. .

“세계인구의 절반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곧 75 %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75%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것은 지역수준에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ICLEI 데이빗 캐드만 회장이 개회사에서 발표했다.

총회를 통하여 강인한 통합과 일치의 인식이 ICLEI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회원들은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더 빠르고 더욱 혁신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젊은 지역사회 지도자들 지원에서부터 도시의 생물종다양성에서 ICLEI의 행동을 진척하는 영역까지 제안하는 것을 채택하기 위한 ICLEI 의회 세션에서 폭 넓은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폐회사에서 캐드만 회장은 2012년 개최될 다음 세계총회까지 지난 3년간 해온 것처럼 ICLEI의 회원을 2 배로 확장하자는 도전을 제시하였다. ICLEI의 창립자이며 저명한 도시학자인 제브 브루그만은 ICLEI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회원이 증가하는 기구로서 회상하였다.

ICLEI 회원들은 지구생태발자국 네트워크 회장이며 생태발자국의 창립자인 매티스 왜커나겔 (Mathis Wackernagel)과 같은 전문가에 의해 발표된 다양한 범위의 지구적 시나리오를 지켜보았다. 이들은 작은 포커스 그룹에서 변화의 긴급성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토의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포커스 그룹과 기타 회의들에서 제안한 내용을 모아서 ICLEI는 몇 달 이내에 향후 6년간의 전략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ICLEI 회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할 예정이다.

총회의 큰 주제는 “우리는 2010 ICLEI 세계총회-Connecting Leaders에서 설명된 지구적 문제를 ICLEI 회원들이 지역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요인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총회를 거쳐 논의되었고 이러한 토의를 미래의 5개 전략방향으로 통합하는 것을 ICLEI 부사무총장인 지노 반 베긴 (Gino Van Begin)이 제의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혁신적인 변화에는 혁신적인 의사결정자가 필요합니다.
.. 이는 우리가 최소한 37개 국의 공업화된 국가에서 2050년까지 5% 이산화탄소 감축을 80% 감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는 우리가 물 없이 사는 10억 인구에게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는 우리가 동식물이 매시간 멸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우리는 2030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지구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의사결정자이며 우리 ICLEI는 귀하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것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2) 이해하고, 지역화하고, 개량화 하고 그리고 인간화 하자!

.. 지구적인 도전을 이해하는 것은 연구와 행동 (지구적 연구는 지역적 실행에 바탕을 두고 있다)을 더욱 효과적인 연결을 필요로 한다.

.. 지역화 및 개량화 하는 것은 지역화된 충격을 통해 지구적인 문제를 밝히어 이 지구적인 도전을 지역현실에 맞게 개량화 한다는 의미입니다; 메커니즘은 반드시 어떠한 작용이 지역적으로 지구적인 문제를 밝혔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 지구적 토론을 인간화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반드시 지구적인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지구적인 문제는 반드시 개인 수준으로 낮춰 주어야 합니다.

(3) 통합적 행동 - 최선의 방책을 모으자

* 지구적 위기는 우리에게 통합적 방법 (물, 에너지, 생물종다양성, 도시계획, 토지, 폐기물 그리고 거버넌스)으로 모든 이슈를 바라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가장 큰 도전은 지속가능한 행동을 경제, 금융, 사회적 위기를 밝힘과 동시에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경제적 사례를 만들자 - 정치/선거 사례를 만들자

* 돈은 큰 역할을 합니다. 돈 계산은 전략적인 방향과 사실을 보강해 주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 완화의 경우,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을 위해 지불되어야 합니다; 기후 대응의 경우와 탄력적 대응 계획의 경우,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재정이 모자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행동적 변화와 생산 패턴: 그들을 변화 시키자!

민주적인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이들의 에너지와 자원 효율과 균형을 맞추자; 특히, 선진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생활방식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자체를 하나로 묶는데 기여할 'ICLEI Asia'의 발표가 기타 ICLEI 주요 행사 및 성취 부분으로 선정되었다. 본 발표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ICLEI 사무소/사무국에서 선포하였으며 자리를 함께한 ICLEI 의회에 의한 긍정적인 발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폐회사 중에서 아시아 지역회원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었는데 "ICLEI 전회원 중 10 %는 아시아에 있고 이들 회원은 아시아 인구의 40%에 해당한다.

아시아에서 개최될 ICLEI 국제환경회의는 아시아 지역에서 ICLEI의 성장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ICLEI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발표되었다.

ICLEI회원들은 끝으로 에드먼튼에서 또 다시 지구기후협약에 지자체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ICLEI 회원들은 2009.12에 많은 회원이 다시 만나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총회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ICLEI 운동은 지구적 지속가능성의 명백한 개선을 획득하기 위한 세계적인 지자체 운동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열정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3. 베를린 환경산업 시찰 2010 (2010.6.1 ~ 3)

독일은 EU 중에서도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이고 이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풍력, 태양광) 비율을 매년 10%씩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다.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는 강력한 원전 탈피 정책을 펴고 있으며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및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보면 1단계로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 수준의 25%로 감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00년 중반까지 이미 이산화탄소를 1990년 대비 19% 감축하였다. 2단계로 2012년까지 교토의정서 기준 6가지 온실가스를 21% 감축할 목표를 설정한 상태이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대대적 확산은 시민, 정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이며 이를 위한 제도, 정책 등의 모델은 지방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일자리가 2008년 기준으로 28만개에 이르고 있다.

베를린 시는 독일 연방 공화국의 16개 지역 연방 중 한 개이며 약 3백 5십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독일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유럽의 교육, 문화, 미디어, 과학의 중심도시이다. 베를린 시는 2010년까지 1990년 기준 25%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 중 15%를 이미 2000년에 달성하였다. 베를린 시는 재생에너지 중 특히 태양열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1998년 1,600kW에서 2008년 9,854 kWp로 증가하였고 발전소 역시 동 기간 동안 400개소에서 1,585개소로 증가하였다. 역사적으로 베를린 시의 배출저감에 대한 3가지 원동력을 보면, 첫째, 독일 통일 이후 도시 내에서의 산업 활동이 감소하였고, 둘째, 화석연료에서 천연가스 혹은 화석연료에서 열병합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난방과 같은 연료로 전환되었고, 셋째, 도시 전반에 걸쳐 건물들의 외형이 현대화 되었다.

① 베를린 시는 '에너지 절약 파트너십 베를린'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며 이 프로젝트는 1996년부터 10년간 베를린시가 타지자체들과 적은 예산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과 기후 보호에 관한 개선방안을 추진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공공건물 (학교, 대학 등)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약 25% 절감하였으며, 매년 6만 톤 이상의 CO₂ 배출 저감으로 베를린 시 연간 예산 중 약 240만 유로를 절감하였다.

② 2005년 하반기부터 베를린 시내의 주요 도로망 16구역에서의 자동차 주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도록 표지판을 설치/운영하여 도로변의 대기오염과 소음이 줄었으며 교통안전이 향상되었다. 또한 베를린 시는 공공기관, 사업체, 개인 등 거의 모든 조명의 사용에 있어 에너지 절약형 조명인 LED로 전환하는 녹색조명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미 2007년 약 330개의 신호등이 교체되었으며 추가로 2011년까지 618개의 교통 신호등을 재정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신호등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의 약 50%를 절감함으로써 연간 약 50만 유로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③ 차량을 공유하는 카셰어링 (Car Sharing)은 일상생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 중 하나로 베를린 시내의 여러 구가 Greenwheel 사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에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츠베르그 구와 템펠호프-슈테네베르그 구의 공공용지에 카셰어링 차량을 세워둘 수 있는 전용 주차장 21개소를 건립하고 2007년에 노이퀼른 구가 추가로 참여하여 차량공유 전용 주차장 3개소를 건립하였다. 이 카셰어링용 전용 주차장 건립이 확대되면 주거지와 더욱 가까워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민간 주택사업자의 기후보호 활동으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 주택사업체 연합(BBU)은 베를린 시와 2007년 12월 'CO₂ 배출량을 2010년까지 매년 약 10만 톤씩 저감하는 것'을 핵심 사항으로 하는 '기후

보호를 위한 '공동협약' 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시행 주체인 BBU는 주택건축 시 주택의 난방과 온수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CO₂의 배출량을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3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⑤ 베를린 시는 유럽 내의 대도시인 런던,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등 유럽 내 8개국 70개 도시에서 환경구역을 계획하거나 혹은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이러한 도시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환경구역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였다.